

5%도 힘들어... '드라마 왕국' 체면 구긴 tvN

(평균 시청률)

500억 투입 '아스달 연대기'부터 '유령을 잡아라' '청일전자 미쓰리' '쌈니다 천리마마트' 등 잇단 부진 '호텔 델루나' 빼고는 사실상 전멸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48' 등의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 조작으로 비난받고 있는 CJ ENM의 또 다른 케이블 채널 tvN이 낮은 드라마 성적표에 허덕이고 있다. 과거 '지상과 채널을 위협하는 tvN'이라는 평가가 무색해질 만큼 방송 중인 모든 드라마가 저조한 성적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그야말로 집단 부진이다. 현재 tvN

드라마 편성표에는 월·화요일 '유령을 잡아라', 수·목요일 '청일전자 미쓰리', 금요일 '쌈니다 천리마마트', 토·일요일 '날 녹여주오'가 잡혀 있다. 이 가운데 평균 5%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넘는 드라마가 단 한 편도 없다. 지창욱의 군제대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날 녹여주오'는 가장 최근인 10일 방송분이 1.8%까지 떨어졌다. 앞서 방영한 '위대한 쇼'와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의 최고 시청률도 3%대다.

무엇보다 tvN으로서는 장동건·송중기 등 톱스타들이 출연한 '아스달 연대기'의 부진이 가장 뼈아프다. 1년 이상의 촬영 기간과 제작비 500억 원을 투입해 블록버스터급으로 완성하면서 '미

스터 션사인' '도깨비' 등처럼 시청률과 인기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그동안 tvN이 높은 완성도의 대작을 연이어 성공시켰지만 '아스달 연대기'는 방송 내내 부진에 시달렸다.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9월 중영한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를 제외하면 '전멸'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반기 시장도 하반기만큼 고전했다. '위대한 쇼' '로맨스는 별책부록' '60일, 지정생존자' '진심이 닿다' '어비스' 등은 각각 송승헌, 이나영, 지진희, 이동욱·유인나, 박보영의 스타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왕이 된 남자'가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13일 "방송사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며 "완성도 면에서도 부진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tvN은 12월14일 시작하는 현빈·손예진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부진을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어 김태희가 결혼 이후 5년 만의 복귀작으로 김도중인 '안녕 엄마', 정해인을 내세운 '반의 반', 영화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드라마 데뷔작 '방법'이 이후 tvN의 전략 작품으로 통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4

'노오란 셔쓰...' 손석우 작곡가 별세



손석우

'노오란 셔쓰의 사나이'의 작곡가 손석우 씨가 12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0년 전남 장흥 태생인 손 씨는 1941년 작곡가 김해송의 추천으로 조선악극단 기타리스트로 음악활동을 시작, 한국 대중가요의 작곡 1세대로 통한다. 1955년 '정실홍실'로 국내 최초 주제가를 작곡했다. 한 명숙이 부른 '노오란 셔쓰의 사나이' 외에도 최희준의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손시향의 '이별의 종착역' 등 명곡을 남겼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블랙핑크, 유튜브 뷰비 10억 뷰 돌파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한국 걸그룹 중 최초로 플랫폼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 10억 건을 넘겼다. 이들은 11일 오후 7시39분 기준으로 히트곡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조회수 10억 건을 돌파했다. 블랙핑크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뚜두뚜두'의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이들은 올해 8월 한국 걸그룹 최초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골드(50만 장 이상 판매) 인증을 받았다.

美 매체 "기생충" 오스카 유력 후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영화전문지로부터 내년도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꼽혔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12일(한국시간) '기생충'이 내년 2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버라이어티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에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5월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은 지난 주말까지 북미에서 누적 1127만 8976달러(약 131억원)의 수입을 기록하며 북미 지역 개봉 외국어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런다화, 19일 내한... '리틀 큐' 시사화



런다화

7월 고향에 귀속당해 부상을 입었던 홍콩 배우 런다화(임달화)가 한국 관객을 만난다. 런다화는 19일 내한해 다음날 열리는 '리틀 큐' 시사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리틀 큐'는 까칠한 성격의 시각장애인인 그의 반역전 'Q'가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과 1990년대 홍콩 느와르 '접혈가두' '흑사회' 등으로 친숙한 런다화는 7월 피습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내한 소식을 알렸다.

백성을 섬기는 왕이나, 백성이 섬기는 왕이나

왕이 된 광대가 꿈꾼 이상적인 세상 이 시대 진정한 리더의 의미 되물어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끝>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전교하다."

'조선왕조실록'은 '광해군일기' 100권의 광해 8년(1616년) 2월28일자에서 이 같이 적고 있다. 이후 15일 동안 광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시시때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 광해는 자신을 대신할 닭은골의 '대역'을 찾아 나섰다. 도승지 허균을 앞세웠다. 허균은 저자거리에서 만담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광대 허균을 광해 대신 용상에 앉혔다.

용상에서 내려다보는 현실, 허균의 시선에 그것은 헛된 사대주의였고, 사리사욕에 눈먼 관료들의 부정으로 가득한 부패의 세상일뿐이었다. 이를 그릇된 일이라 하는 허균에게 허균은 "올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일 뿐이다"고 말했다. 허균은 현실의 정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상 권력을 중심에 두고 오로지 신하된 자로서 취할 처세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고, 무고한

백성을 대국의 용병으로 보내려 하는 헛된 사대주의를 꾸짖으려는 허균을 바라보며 허균은 왕이 되라고 말했다. 허균의 모습에 진짜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꿈이라면, 하지만 허균은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며 고통스런 천민의 현실로 되돌아간다. 허균은 마침내 허균에게 고개를 숙였다.

허균에게서 내비친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었다. 어떤 화려한 수식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최용기 커리리필름 대표) 혹은 "지도자의 덕목"(여한구 캐피탈원 대표)으로서 다시 소중해지는 까닭이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연출자 추창민 감독은 광해와 허균의 서로 다른 모습을 뛰어난 배우 이병헌과 허균 역의 류승룡에게서 이 같은 메시지를 찾았고, 1200여만의 관객이 이에 호응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시리즈는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작품을 소개해왔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끝으로 연재를 마감합니다.



추창민 감독이 연출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주연 이병헌이 광대 허균(왼쪽)과 광해의 1인 2역을 연기하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관해 관객에게 물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하자있는 인간들' 방송 전부터 악평 테러

'구혜선과 파경' 안재현이 주 타깃

27일 선보이는 MBC '하자있는 인간들'이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누리꾼의 '악평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에 대한 '평점 테러'와 비슷한 양상이 인방극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자있는 인간들'의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에이스트리는 첫 방송을 앞두고 최근 드라마 포스터와 스틸컷 등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6월 대본 리딩을 시작한 제작진과 연기자들도 막바지 촬영에 한창이다. 드라마는 외모 집착증 남자와 '꽃미남'을 혐오하는 여자의 사랑을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댓글에 벌써부터 "보기 싫다"는 악평을 이어가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영상 플랫폼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과 포스터 공개 기사 댓글도 다르지 않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주연 안재현이다. 안재현은 9월5일 아내 구혜선과 이혼청구 소송을 시작하며 앞서 휩싸인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어떻게 벌써 드라



MBC 새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의 주연 안재현(왼쪽)과 윤여수. 사진제공 | MBC

마에 나올 수 있나"며 할난조의 댓글을 연이어 달고 있다.

이에 영화 '평점 테러'와 닮은 양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영화 개봉 이전에 온라인 악평과 낮은 평점을 통해 비난을 대신하는 일부 누리꾼의 행위가 드라마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특히 드라마와 무관한 주제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 사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에 한 제작 관계자는 12일 "연출자 오진석 PD를 비롯한 연기자들과 스태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저마다 '드라마로 보여주자'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D-1...결전의 날 앞둔 올해의 수능들은?

전소미·류진 등 일·학업 '두 토끼' 로켓펀치 수훈·윤경도 수능 도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딱 하루 남았다. 전국의 수험생들과 함께 올해 시험을 치르는 아이돌 가수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공부해온 만큼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이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2001년생 가운데 일부가 연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시험을 포기했지만 대부분은 고사장으로 향한다.

대표적으로 걸그룹 아이오아이 센터로 활약하다 최근 솔로로 데뷔한 전소미가 시험을 치른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부터 줄곧 서울에서 다닌 만큼 대학까지 서울에서 다니겠다는 계획이다. 전소미가 소속사를 옮기기 전 몸담았던



전소미

류진

JYP엔터테인먼트가 배출한 신인 걸그룹 일지의 류진도 시험을 본다. 류진은 고등학교 성적도 꽤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친딸'로 불렸다.

류진과 전소미의 남다른 인연도 시선을 모은다. 전소미는 류진과 함께 있지로 데뷔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데뷔 직전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레이블로 이적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일지의 멤버 채령은 올해 수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걸그룹 로켓펀치 멤버 중 수훈과 윤경도 수험장에 앉는다. 두 사람은 제작진의 투표 조작 의혹을 받은 '프로듀스 48'에 출연했다 탈락했다. 또 다른 논란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얼굴을 알린 김동윤과 주창욱을 비롯해 12인조 걸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최리도 수능에 응시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